

[동종업 타사 중대재해 발생알림]

대우조선해양건설 김포 물류창고 현장 협착 사고 件

안전기획팀
'22.07.14. 16:30

□ **시공사** : 대우조선해양건설(주) (2021년 시공능력평가 8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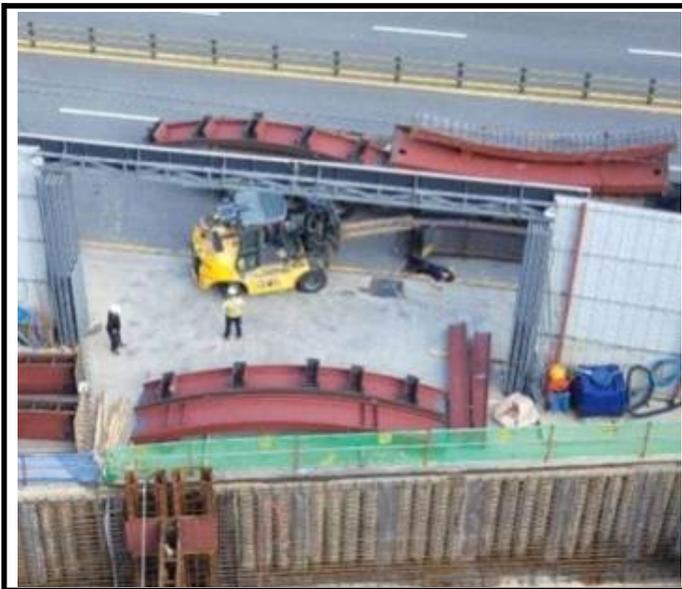
□ **현장개요**

- 현 장 명 : 김포 대포산업단지(A7-2)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261-2)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4만4678㎡
- 공사금액 : 493억원

□ **재해내용**

'22.07.15(금) 07시 40분경 현장입구 2번게이트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철골 하역작업 진행 도중, 철골 거더가 전도되어 피재자(화물차 운전원) 하반신에 협착.

□ **현장사진**



□ **피해상황**

- ▷ 인적피해 : 1명 사망
- ▷ 물적피해 :

□ **사고원인 추정**

- ▷ 중량물인 철골거더 하역중 낙하위험반경에 화물차 운전원 접근

□ **당사 현장 조치사항**

- ▷ 재해사례 전파
- ▷ 자재(중량물) 하역 작업시 화물차 운전원 등 낙하 위험 반경 출입통제 조치 철저
- ▷ 중량물 하역 작업이 포함된 공정은 위험성평가지 상기 사고사례를 반영하여 안전대책 수립 및 이행 실시

■ 언론 보도자료(한국경제 외)

대우조선해양건설 김포 현장서 사망사고…“중대재해 조사 중“

곽용희 기자 ☆

입력 2022.07.15 15:51 수정 2022.07.15 15:56

가가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시공 중인 김포 스마트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15일 김포 양촌읍에 소재한 물류센터 건축 현장에서 출입구에서 지게차로 자재를 하차하던 근로자가 충돌 및 협착 사고를 당해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현장은 양촌읍 대포리 일원에 조성되는 950억원대 규모의 공사이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장 관계자들이 상하차 작업구간에서 중량물 낙하위험구역의 출입을 통제 중"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였지만 2019년 사모펀드에 인수됐다가 한국코퍼레이션그룹 계열사인 한국테크놀로지에 매각됐으며, 근로자수 400명대의 중견기업이다.